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2월 6일

CUOMO 주지사, 동성무공훈장을 받는 6명의 뉴욕주 주방위 공군 군인들을 칭송

이 주방위 군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포화 속에서의 용맹스러운 행동으로 동성훈장을 받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6명의 뉴욕주 주방위 공군 군인들이 12월 6일 금요일 F.S. Gabreski 주방위 공군 기지에서 동성무공훈장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제106 구조비행단 제103 구조 비행 중대 소속의 이 6명 군인들은 2012년 12월 10일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의 구조 임무중 포화 속에서 발휘한 용맹으로 훈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일선에 내놓은 6명의 뉴욕주 주방위 공군 군인들의 엄청난 용맹을 표창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방위 군인들은 해외의 전쟁에서나 조국의 비상시에나 감탄할 만하게 봉사해 왔습니다. 이 6명의 주방위 공군 군인들의 용기, 명석한 사고 및 사심 없는 헌신은 뉴욕 주방위 공군의 놀라운 봉사를 증거합니다. 본인은 모든 뉴요커들을 대표하여 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영예를 안은 이 용감한 군인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 6명의 군인들은 그 당시 칸다하르 비행장의 제451 원정비행단에 속한 제651 원정비행 그룹의 제46 원정구조 중대 파견대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위 Ronnie Maloney, Middle Island 출신; 원사 Erik Blom, Hampton Bays 출신; 중사 Anthony Yusup, Bloomsburg, Penn. 출신; 하사 James Dougherty, Rocky Point 출신; 하사 Matthew Zimmer, Westhampton 출신; 하사 Christopher Petersen, Commack 출신, 당시 상병.

이 뉴욕주 방위 공군 군인들은 제38 보병 연대, 제1 대대의 한 소대에 사제폭발물이 터져 미군 3명과 아프가니스탄 군인 1명이 심하게 부상 당했을 때 그들 모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후송하였습니다.

이 전투구조 장교와 군대에서 수호천사로 알려진 낙하산 구조 대원 5명은 "치열한" 착륙 지점에 투하되었으며 탈리반의 AK-47, 기관총 및 로켓추진식 유탄의 지속적 포화 속에 놓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공격 헬리콥터 지원을 요청하고 4명의 군인들을 그들 자신의 몸으로 총격으로부터 엄호하면서 응급 치료를 하였습니다.

Korean

“저는 이 군인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제103 구조비행 중대의 Shawn Fitzgerald 중령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와서 밤낮 없이 하는 힘든 일을 입증합니다. 전투구조 장교와 낙하산 구조 대원이라는 것은 독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엄청난 양의 정규 및 전통적 방위군인들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동성무공훈장을 받는 이외에 그들의 공훈은 현역 및 퇴직 공군 구조 대원들의 전문가 협회인 Jolly Green Association에 의해 2012년도 “올해의 구조 임무”라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V 글자가 표시된 동성무공훈장은 영웅적 행위에 대해 수여되는 공군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순위의 훈장입니다.

Blom과 Yusup은 파트타임으로 복무하는 전통적 방위 공군입니다. Blom은 Suffolk 카운티 경찰관이고, Yusup은 간호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Maloney, Zimmer, Petersen 및 Dougherty는 제106 구조비행단의 풀타임 대원들입니다. Petersen은 10월에 미국위문협회의 연례 행사 시에 올해의 주 방위군 병사로 표창되었습니다 25.

임무 설명

2012년 12월 10일에 이 6명의 제103 구조비행 중대 군인들은 수호천사팀이 되어 현역 공군 부대인 제55 구조비행 중대의 대원들이 운전하는 2대의 HH-60 Pavehawk 구조 헬리콥터에 타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약 25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소대가 습격을 받아 4명의 병사들이 매우 심하게 부상 당했는데, 미군 중 1명은 나중에 사망하였습니다.

2대의 헬리콥터가 현장에 접근할 때 그 부대는 아직도 탈리반의 공격 속에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중 1대는 Yusup, Dougherty, Petersen의 3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먼저 지상에 내려놓기 위해 영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리콥터가 3명의 공군을 내려놓기 위해 접근하자 곧 기관총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진흙벽 뒤에 피신해있던 미군 및 아프간 보병들과 연결하기 위해 병사들이 움직일 때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주방위 공군들이 부상 병사들에 대한 분류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로켓추진식 유탄 두 발이 5미터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 3인조의 리더인 Yusup은 사상자 회수점을 통제하고 부상자 적시 치료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의 포화에 노출된 채로 있기로 하였습니다.

Dougherty와 Peterson은 적의 공격을 무시하고 부상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즉각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로켓추진식 유탄이 근처에 떨어지자 그들은 자신의 몸으로 부상자들을 가렸습니다.

그 사이에 선도 헬리콥터 Pedro 61이 착륙하여 다른 3명의 주방위 공군, 즉, 전투구조 장교 Maloney, 팀의 하사관 Blom 그리고 Zimmer를 내려놓았습니다. 3명 모두 부상자 치료 및 이동을 돕기 위해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엄폐물이 없는 평지를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Zimmer는 총상과 유탄 부상을 당한 3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또한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잃고 심각하게 다친 미군 1명을 안정시켰습니다. Blom은 부상자 회수 및 치료 과정을 담당하였고 Maloney는 적의 로켓추진식 유탄을 피하면서 HH-60 페이브호크 헬리콥터와 한 쌍의 Army Kiowa Warrior OH-58 공격 헬리콥터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적에 대한 50구경 기관총 사격과 로켓포 사격을 정확하게 지시하였습니다.

헬리콥터 기관총 및 로켓포의 사격으로 적이 진압되자 Blom은 구출 계획을 전달하고 팀이 움직일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Blom은 여분의 탄약을 지상 대원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그와 Maloney는 사선에 자리잡아 적을 진압하는 동안 다른 4명의 주방위 공군 병사들은 보병들이 부상자들을 대기하고 있는 HH-60 헬리콥터로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Zimmer는 구조용 들것 팀 중 한 팀이 험한 지형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 다시 뛰어감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탁 트인 곳으로 갔습니다.

부상 병사 4명 모두 칸다하르 비행장의 전투 외과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팔다리 3개가 절단된 Wesley R. Williams 하사(25세, 오하이오주 New Carlisle 출신)는 도착하자 그곳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주 방위군 병사들의 배경

대위 Ronnie S. Maloney(43세)는 뉴욕주 주방위 공군 제103 구조비행 중대의 팀 지휘관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제106 구조비행단의 정규 단원입니다.

그는 이전에 육군 사병 및 육군 방위군 장교로 복무하였습니다. 육군 방위군 당시 그는 2004년에 이라크에 배치되었습니다.

2008년 3월에 그는 육군 방위군에서 제103 구조비행 중대로 전출되어 전투구조 장교가 되었습니다. 낙하산 구조 학교에 재학시 그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Lt. Col. Don Flickinger 상을 받았습니다.

원사 Erik S. Blom(37세)은 제103 구조비행 중대의 수호천사팀 리더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1994년에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학교와 유격학교를 졸업한 후 2000년에 미공군에서 복무하였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도 복무하였습니다.

하사 James J. Dougherty(29세)는 제103 구조비행 중대의 수호천사조 리더로 선임되었습니다. Dougherty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사 Christopher Petersen(28세)은 정규 주 방위군으로서 현재 제103 구조비행 중대의 낙하산 구조 대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낙하산 구조 학교에 재학시 그는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Charles D. King 상, 최고 위생병으로 Purple Heart Association 상 및 유명한 Jason D. Cunningham 상을 받았습니다. Petersen은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비행장에서의 항구적 자유 작전에 전투 배치된 것을 포함하여 85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중사 Anthony D. Yusup(31세)은 제103 구조비행 중대의 수호천사 회수팀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2000년에 졸업 후 육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육군에 있는 동안 그는 육군 기초 훈련, 보병학교, 공수학교, 유격 심화 프로그램 및 유격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Yusup은 제75 유격연대 제2 유격대대의 공수 유격대원으로서 2002년에는 항구적 자유 작전을 지원하여 아프가니스탄에 그리고 2003년에는 이라크 자유 작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2003년에 특기병 계급을 따고 육군에서 명예 제대하였습니다.

2003년 가을에 육군을 떠난 후 Yusup 병장은 즉시 뉴욕주 공군 방위군에 입대하여 낙하산 구조 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2004년에 낙하산 구조 심화 과정 재학시 우등 졸업생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후 그는 2005년에 육군 특전단 전투 다이버 자격 과정, 공군 생존학교, 군사자유낙하학교, 구급학교, 낙하산 구조 도제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하사 Matthew F. Zimmer(31세)는 제103 구조비행 중대의 수호천사 낙하산 구조팀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2001년에 공군에 입대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생존, 도피, 저항 및 탈출(SERE) 특기병으로서 Fairchild AFB에서 근무하였습니다. Zimmer는 2009년에 뉴욕주 주방위 공군에 입대하였으며 2011년 4월에 낙하산 구조 도제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최근에 제106 구조비행단에서 제4분기의 분기 NCO 표창을 받았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